

# ‘만드는 자’ 라고 믿고 있었다

We have believed we are makers

focus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건축설계계는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낙관적이어야 할 미래가 안 보인다. 사회를 바꾸고 도시를 만들 것으로 굳게 믿던 시절과는 너무나 단차가 크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건축사들은 본래 ‘만드는’ 행위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은 형태와 공간을 만드는 자였기 때문에, ‘만드는’ 행위를 결정해 주는 저 밖의 다양한 힘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으니, 만드는 행위를 결정하는 저 다양한 제도를 바꿀 만한 힘도 당연히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 건축사는 정작 ‘만드는’ 일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 건축사는 내가 설계한 집, 내가 ‘만든’ 집이라고 말하지만, 건물은 건축주가 만들게 한 것이고, 건물은 시공자가 만든 것이지, 건축사가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건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렸을’ 뿐이다. 어떤 이는 그리는 것이 곧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그 말은 건축사라는 전문가 울타리 안에서만 맞는 말이다. 건축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못되었고, 친환경의 장본인인데도 내가 과연 친환경을 ‘만드는’ 자인가 하며 자신 없애고 있다. 오히려 건축사들은 ‘그리는’ 행위 안에 닫혀 가고 있었다.

이 사회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과 나무라는 물질로 구성될 때,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는 건축사가 건물을 만든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만드는 자는 건축사가 아니라, 시공자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시공자를 상대로 수주하고 있으며, 건물을 만드는 시공자는 건축사와 계약하여 건물을 그리게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건축법도 설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그리는’ 일로 규정한다. 건축법은 설계란 사상(思想)을 통하여,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물질과 공간으로 구축하고, 평범한 땅을 생활이 깃드는 장소로 만들며, 공동체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건축사는 스스로 ‘만드는’ 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라도, 그는 닫힌 안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건축사는 만드는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사회적인 통념도 법이 지시하는 바를 벗어날 수 없다. 도면을 그리는 것을 설계라고 정해 두어서, 종종 ‘디자인’이라는 말로 위장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디자인이 ‘만드는’ 일을 뜻해 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우리 건축계의 유명한 식자일수록 ‘건축’과 ‘건물’을 지나치게 차별해 왔다. ‘건축’은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건물’은 ‘만드는’ 형이하학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이에, 건축사들은 더욱 더 만드는 행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건축사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건설의 프로세스 전체를 통괄할 때이다. 이때 건설은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프로세스 전체’란 건설 공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설의 공정을 훨씬 넘어, 건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세스 전체’인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 전체 속에서 통괄하여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기만 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듯 소중한 위치를 잃어 가고 있다. ■



김광현 / Kim, Kwang-hyun, HKIRA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약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이사 및 특별 회원